

**삼위일체 해석원리를 구현하는 성경의 연극적 읽기 원리 :
밴후저의 삼위일체 소통원리와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방법론을 중심으로**

**The Dramatic Reading Principle of the Bible that
embodies Trinitarian Principle of Interpretation :
Based on Vanhoozer's Trinitarian Principle of
Communication and Stanislavski's Acting Method**

서민정 (Min Jeong Seo)*

Abstract

This article shows that the dramatic reading of the Bible can be an interpretative way of implementing the Trinitarian principle by approaching the biblical text holistically through the balance of reason and experience. For this specific reason, I insist on reading the Bible as the “play of Playwright”, from the author’s perspective. Unfortunately,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every dramatic interpretation approach of the Bible will convey the author’s intension. Improvised acting for instance, it is an audience driven interpretation—allowing for subjective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interests and preferences of its audience than to convey the author’s intention. Therefore, my suggestion is to avoid such audience-centered interpretation but to understand the Bible first and foremost as the revelation of the Author, God.

This paper suggests four reading principles – imagining, speaking, following, performing – based core concepts of Stanislavski, in effort to accomplish the dramatic reading of the Bible. ‘Imagining’ is a kind of thought process through which we enter into the world of the text, enabling us to transcend literalistic meaning into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based on situational language. ‘Speaking’ seeks to understand a particular situation as part of the flow of the whole story by testifying to the summary. At the same time, this is the

* 백석대학교(BeakSeok University) 교양대학 외래강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76,
hi-day29@hanmail.net

2019년 05월 11일 접수, 05월 30일 최종수정, 06월 03일 게재확정

principle by which we participate in the situation as a character. “Following” seeks after “the super-objective” that penetrates the whole text, and is used for analyzing the text according to authorial intention. God the Son accomplishes this super-objective in the text, and the objectives of various characters are found within this overarching objective. “Performing” helps u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ext by embodying the characters of the story. This embodiment is based on each character’s unique objective and background. In biblical interpretation, although these four principles occur together organically, it is this fourth principle that accomplishes dramatic reading. Based on the Bible, we are able to react to the text by imagining the will of God the Father, testifying to the summary of the text, following after God the Son’s objectives and activities, and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text contextually by the help of the Holy Spirit.

Such dramatic reading has a holistic element based on role experience. In this process,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knowing comes into conflict. This conflict enables the interpreter to recognize how his or her motivations are either synchronized or distinct from “the super-objective” of the text, helping to overcome the temptation of subjective reading and to proceed forward to practicing knowledge.

Key Words : the Bible, dramatic reading, interpretation, narrative, Stanislavski, Vanhoozer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백석대학교, 2017)를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1. 들어가는 말

현대 텍스트 해석을 둘러싼 담론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원주의를 전제한다. 그리고 성경 텍스트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며 해석자의 주관적 해석을 지양하는 기독교 학문은 수용자 중심의 다원주의 해석태도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구받는다. 이에 케빈 밴후저(Kevin J. Vanhoozer)는 다양한 해석 방법을 사용하되 여러 가능성에서 텍스트에 실재하는 “하나의 참된 해석(밴후저, 2012: 671)”을 찾는 과정으로서 성경 해석의 다원성을 언급한다. 그는 다원주의적 해석 환경이 오히려 신학적 위기를 드러내 준다고 보며 삼위일체를 토대로 한 삼중적 소통이론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석 태도에 대해 신학적으로 답한다.¹⁾

1) 밴후저는 성경 해석에서 드러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에 대해 “저자-텍스트-독자라는 문학적 삼중성”을 적용하여 성부 하나님을 발화자로, 성자 하나님을 의미 수반 발화로 하나

본고에서는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통 행위에 대한 그의 입장에 근거하여 삼위일체 원리가 성경 해석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방법론적 시도로 연극적 읽기의 원리를 다루려 한다. 뱀후저의 언급처럼 성경의 연극적 읽기가 다양한 해석 방법들 중의 하나일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참된 해석”을 목표로 한다면 삼위일체의 원리는 그 신학적 방향과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성경의 연극적 읽기는 해석자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으며 연극적 시도들이 성경의 풍성한 의미를 이성 과 경험이 조화된, 구체적이고 전인격적인 방법으로 묵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시도들이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허용하는 다원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텍스트에 ‘실재하는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되는 데에 기여하고자 본고에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연극적 읽기의 몇 가지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메타이야기인 성경은 내러티브성을 가진 다양한 문학적 글들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 아래 통일되게 구성되어 있다.²⁾ 필자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담은 성경을 연극적인 도구로 해석하는 일이 성경적 원리를 갖기 위해서는 거대서사, 즉 메타이야기로서 강조되는 성경의 신적 저자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성경의 저자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의 일관된 의미를 담보하며 이는 연극적 읽기의 핵심적 해석 태도인 텍스트를 관통하는 초목표에 집중하는 원리로 반영된다.

성경의 연극적 접근은 해석자의 주관적 경험이 강조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태도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³⁾ 뱀후저는 교리가 마치 스타니슬랍스키가 말하는 “배우

님의 말씀이자 “메시지의 실제적 내용”으로, 성령 하나님을 “발신자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조건과 능력”으로서 효과수반발화자로 설명한다(뱀후저, 2012: 729).

2) 필자는 메타이야기를 거시적 관점에서 본 복음의 전체 줄거리이자 보편적 원리가 되는 이야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내러티브를 미시적 관점으로 본 복음의 실존적이며 구체적인 현장을 담은 이야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연속적이든 불연속적이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의 내러티브들과, 이것들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의 이야기인 메타이야기의 관계는 인간들(다양성)과 하나님(통일성)이라는 성경의 이중저자가 갖는 특성을 잘 드러내 준다.

3) 지금까지 성경의 연극적 읽기를 삼위일체 신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경 해석의 실제적 원리로 적용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찾기 어렵다. 발타자르(Hans Urs von Balthasar)는 성경 해석을 미학적 차원, 하나님의 드라마(theodrama)차원, 그리고 삼위일체와 교회의 차원에서 다룬 바 있으나 연극 매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연극적 해석의 실제에 대한 논의로 연결하지는 않았다(Bourgeois, 2002: 125-134). 다만 뱀후저가 연극 비유의 통찰로 교회론을 설명하고(Vanhoozer, 2005), 언어소통이론을 토대로 한 삼위일체론을 성경 해석의 틀로 제시한 것이 본고의 가장 대표적인 선행연구라 할 수 있다(뱀후저, 2012). 특히 뱀후저가 주요 연극 원리와 연출가들을 신학적 입장에서 조망한 점은 성경

에게 행동을 관통하는 선(the “through line of actions”)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고 언급하며 연극적 해석과 신학적 기능을 연결 짓는다(Vanhoozer, 2005: 371, 374).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은 배우가 연극의 중심 생각으로 훈련되는 역할을 구체화하고 즉흥적으로 하도록 준비하는 도구이다. 마찬가지로 교리는 드라마투르기 작업의 결과이며 제자들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중심 생각과 관통선을 기억하도록 돕는다(Vanhoozer, 2005: 372).

벤후저는 스타니슬랍스키가 정립한 “만약(if)”이라는 연극적 약속을 종말론적 관점의 가정으로 치환함으로써 메소드 연기법과 성화의 과정을 병치시키며 그의 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Vanhoozer, 2005: 369). 콰비스(Timothy G. Gombis)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성경을 통찰한다. 그는 『이렇게 승리하라(원제: 에베소서와 드라마)』에서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드라마로 제시한다. 그는 에베소서를 명제적 지식을 담은 교리 혹은 목적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만을 담은 편지가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이해하도록 쓴 ‘드라마’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 그의 견해는 성경을 담고 있는 드라마의 이야기 구조가 독자에게 인물들의 갈등과 역동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상황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경륜적 모습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큰 이야기에 자리한 인간의 실존적 의미를 통찰하게 한다.

다만 연극은 인간의 몸과 음성, 생각과 마음을 도구로 삼는 매체이기에 성경을 읽는 해석자의 주관적 수용을 배제할 수 없다. 연극은 해석적 갈등의 쟁점인 이성과 경험의 측면을 동시에 반영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해석적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성과 경험의 균형적 해석이 성경적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원리로 삼을 해석학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텍스트로서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전제하에 상상하기(imagining), 말하기(speaking), 따라가기(following), 수행하기(performing)의 네 가지 연극적 원리를 제시하고 이 원리들이 삼위일체 원리를 구현하는 해석 태도가 될 수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해석과 연극적 접근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 외에 성경 읽기의 실제에 연극적 방법을 도입시킨 사례와 연구들은 국내의 비블리오드라마 관련 문헌에 다수 소개되어 있으나 성경의 연극적 접근에 대한 신학적 원리와 조망과는 관련을 찾기 어려워 실제 연극적 읽기 현장의 분석을 위한 참고 자료로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성경 해석과 연극적 읽기의 원리

일반적으로 연극적 읽기는 상황적 맥락을 토대로 행간(subtext)의 의미를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냄으로써 텍스트 속 저자의 의도를 해석한다. 연극은 텍스트 해석을 토대로 연출가의 재해석을 거쳐 창의적으로 무대에서 상연된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을 연극적으로 접근하는 목적은, 공연이 아닌 성경의 인격적인 해석에 두고 있기에 연출가의 해석을 통한 무대형상화의 진단계인 텍스트 분석과 텍스트에 근거한 즉흥연기를 통한 행동화 과정에서 필요한 연극적 원리를 다루려 한다. 또한 이 접근은 텍스트의 창의적 해석을 강조하는 현대연극의 실험적 태도보다는 텍스트의 내용을 저자의 의도대로 따라가고 재현하는 해석적 태도를 갖는다.⁴⁾

본고에서 다룰 재현적 연극⁵⁾이 추구하는 ‘사실주의’는, 인간의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것뿐 아니라 지라르가 정의한 바와 같이 “있는 것을 있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지라르, 2007: 190). 이는 성경 텍스트에 의미가 이미 있다는 뵘후저의 입장처럼 ‘실재하는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필자는 이 ‘실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의미의 제공자이신 하나님의 신적 저자성을 그 중심에 두려 한다. 그리고 제시된 성경의 의미를 성경에 쓰여진 대로 진실하게 구현하는 과정으로 ‘재현적 연극’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성경을 토대로 재현되는 대상은 인간의 감각으로 인지되는 사실 세계뿐 아니라 감각 너머의 본질적 실존 세계도 포함한다. 배우가 단순히 텍스트의 내용을 관객에게 최대한 사실로 느껴지도록 그럴 듯하게 모방한다고 해

4) 창의적인 연극 접근은 텍스트의 내용을 좀 더 새롭게 통찰하고 생동감 있게 경험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텍스트 자체의 의미보다 수용자의 입장이나 경험이 강조되고, 수용자가 본문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이 되기도 한다. 이를 배제하고자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내용에 충실한 재현적 연극의 접근을 제안한다. 재현적 연극이 필자가 강조하는 성경을 저자중심적 해석에서 출발하는 데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5) 연극은 인간 마음의 내용을 행동이란 외적 형태로 표현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제시적(presentative)이다. 재현적(representative) 연극은 20세기 이후 사실주의에서 강조된 연극 형태이다. 재현적 연극은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이지 않는 벽’을 통해 관객이 보고 있다는 환상을 줄 만큼 텍스트의 내용을 사실대로 재현하고자 한다. 사실주의 연극을 중심으로 발달된 재현적 연극은 텍스트의 정보뿐 아니라 당시 사회적 배경의 문헌을 기초로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사실대로 고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서 성경을 통해 인식된 본질적 실존 세계가 구현되지 않는다. 배우가 텍스트의 내용을 저자가 제공한 사건의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 자신을 그 상황에 내맡기고 자극에 진실하게 반응함으로써 인물을 수행해야만 신적 저자가 제공한 의미, 실재하는 의미를 저자의 의도대로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 실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⁶⁾

이 점에서 배우의 연기가 과장되거나 관객을 의식하는 행동이 아니라 인물로서 ‘진실된 동기’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방법론은 주목할 만하다.⁷⁾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의 동기’ 즉 마음의 중심에 초점을 두고 독자의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간 저자의 증언으로 구성된 신적 저자의 계시이다. 스타니슬랍스키는 텍스트의 주어진 상황을 “만약에라는 마법(magic if)”라는 상상의 지렛대를 사용하여 우리의 실존 앞에서 직면하게 한다. 배우이자 해석자인 우리는 각 인물의 행동을 일인칭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동기를 찾아 텍스트의 사건을 역추적하며 구현할 수 있다.⁸⁾ 그 속에서 인물을 맡은 해석자는 강력하게 추구하는 최종적 지향점인 목표(the objective)를 찾아 행동들을 정당화하며 구체적으로 경험한다.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방법론은 “만약에라는 마법”, 인물의 내적 동기, 목표와 초목표(the super-objective), 행동의 관통선 그리고 ‘역할로서 생활하는’ 연기 등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다. 그의 접근법은 성경이 제공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과 인간, 피조 세계 사이의 사건들로 제시되는 상황적 지식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적 공간의 창출과 의미의 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의미의 제공자이자 저자이신 하나님이

6) 여기서 해석의 텍스트는 신적 저자의 계시를 담는다는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해석을 위한 연극적 접근 과정에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7) 당시 배우의 과장되고 기계적인 연기에 반대하여 배우의 진실한 반응의 연기를 추구했던 스타니슬랍스키는 인물의 내적 동기에 따라 구체적 행동을 찾는 훈련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 현대 연극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연기법을 기초로 하여 안민수는 그의 연극연출론을 체계화하였다(안민수, 1998; 2015 참고).

8) 전국재는 성경 공부에 사용되는 다양한 연극적 방법을 “엄격한 현장재현, 촌극, 그림자극, 사회극, 역할극, 상황극” 등으로 소개한다. 그 외에도 “성경 본문의 성격에 따라 드라마(dramatic play), 이야기극화(story dramatization), 인형극, 무연극”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전국재: 1999, 28). 이 중에서 “엄격한 현장재현의 연극”은 마치 형사가 사건 감증을 위해 현장을 재현하듯 텍스트의 내용을 역추적하여 재현하는 성경읽기로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텍스트의 상황을 막연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정보와 맥락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추적하고 구현한다는 점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연극적 읽기의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 사건 속에서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에서 초점을 두고 진실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점 등은 스타니슬랍스키가 강조하는 진실한 반응으로서의 행동을 구현함으로써 해석자가 성경 텍스트를 구체적이고 전인격적으로 통찰하고 접근하는 데에 유의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방법론이 성경 해석에서 독자에게 바람직한-성경의 본래 의도대로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역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경 해석에 필요한 신학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뱀후저의 삼위일체 소통원리를 기초로 스타니슬랍스키 연기방법론에서 선택한 핵심 개념을 네 가지 연극적 읽기 원리로 제안하고자 한다.⁹⁾

1. 상상하기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속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이라고 할 때, 성경을 사건에 근거한 내러티브로 읽는 유익이 있다. 그것은 성경 내러티브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인간 삶과 동일한 요소를 지닌 내러티브 형식으로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상의 삶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성경 해석에서 작용하는 상상하기(imagining)의 원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큰 서사, 메타이야기 안에서 성경 속 각각의 사건과 진술을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상상하기는 성경의 해석에서 다양한 성격으로 기능하는데 특히, 상상을 통해 우리의 이성적 이해가 문자적 읽기를 넘어 하나님의 전체적 이야기 안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통찰의 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성경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보고 그 안에서 각각의 다양한 문학적 장르의 텍스트들을 해석하는 일은 성경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지라는 데에 기인한다. 다양한 인간 저자들이 쓴 문학적 형식을 가진 각 텍스트들의 구성이 비록 다양한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텍스트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로 모아지며 전체를 포괄하는 한 가지 구성(plot)

9) 여기서 제시될 성경의 연극적 읽기 원리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훈련법과 이를 수용한 안민수의 희곡분석과 인물분석의 방법을 토대로 삼았다. 안민수는 스타니슬랍스키가 강조한 텍스트의 초목표와 인물의 내적 동기에 근거한 즉흥 훈련에 첫인상 정리하기, 줄거리 요약하기, 내적 동기에 따른 행동선 만들기 등의 과정을 첨가하여 희곡의 실제 분석과정과 인물 형상화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본고에서 다룰 연극적 읽기 원리를 이끌어내는 데에 적합한 근거를 제공한다.

을 통해 전개되기 때문이다.

성경의 전체적 구성과 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를 따라 각 텍스트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텍스트에 근거하여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구속적 상상의 시각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연극적 해석에서 상상하기의 원리는 뵘후저의 언급처럼 “비록 실연은 해석에 본질적이지만, 그 악보에 종속되어” 있듯이(뵘후저, 2012: 562) 텍스트에 종속되어 있다. 피터슨에 따르면 묵상은 “일관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이며(피터슨, 2014: 173), 우리는 “역사적 신앙을 고수하면서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침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에게 묵상은 “계시 전체의 의미와 이야기가 우리의 이해력을 꿰뚫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피터슨, 2014: 173).

한편 연극에서 실제적 원리로 사용되는 상상의 개념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한다. 역할 연기에서 상상은 성경의 사건을 ‘근거 있는 이유’를 토대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인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작용한다. 텍스트의 한 장면을 연극으로 만들 때, 연기는 텍스트의 내용을 ‘근거 있는’ 상상으로 해석하고 구현하는 일이다. 연극에서 상상과 믿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배우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철저히 믿을 때라야 진실한 반응의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편적 원리를 명제로 기억하도록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이사야 6: 10)”게 하고자 기록된 글이라고 한다면 연극적 상상과 믿음의 원리는 성경 해석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공연을 전제로 한 텍스트 읽기에서 상상하기는 해석자의 창조적 해석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성경의 바람직한 이해와 적용을 위한 연극적 읽기에서 상상하기는, 해석자가 최대한 전방위적으로 텍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의 세계로 들어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안민수는 상상에 대해 “사물의 참뜻을 꿰뚫어볼 수 있는 힘”이라고 설명한다(안민수, 2015: 240). 성경이 전하는 많은 사건과 증인들의 고백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속 사건의 시점으로 이동하여 텍스트가 자세히 전하지 않은 숨은 의미를 찾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인물이 하는 말을 읽을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떤 이유와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앞뒤 문맥에 비추어 인물의 내적 상태와 감정을 상상하며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는 많

이 왜곡되어 있고 진리를 분별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도, 축적된 이미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며¹⁰⁾ 이를 위해 성경 저자가 의도하는 텍스트의 문맥 안에서, 제공되는 언어들을 토대로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물론 ‘마음’에 집중한다. 성경은 구체적 시간과 공간에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성경 기자들의 초점은 모두 사건과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 또 성경은 각 인물들이 구체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한다. 마음은 명제적 지식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얻는 명제적 지식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로 기억된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단순한 사실만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감정과 가치가 부여된 채로 마음에 기억된다. 이미지가 모여 사고를 형성하고 그 사고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세계관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세계관은 삶의 상황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구체적인 동인(動因)의 토대가 된다.

연극적 해석은 내가 아닌 ‘그 인물’의 입장으로, 여기가 아닌 ‘그곳’으로, 지금이 아닌 ‘그때’로 이동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내 입장이 아닌 철저히 ‘타자’의 입장에 서는 일이다. 그렇다고 자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일은 아니며 거부할 수도 없다. 연극적 해석에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극중 역할인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과, 역할을 경험하기 위해 전인격적으로 집중하는 ‘헌신’의 과정이 요구된다. 상상하기는 이러한 연극적 해석에 있어 필수적인 원리이다. 배우는 텍스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많은 이미지가 담겨진 텍스트를 토대로 자신의 상상을 구체화시킨다.

성경 해석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한 뱀후저는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에서 텍스트에 본래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논의를 진전시킨다(뱀후저, 2012). 뱀후저는 그동안 해석자를 강조해온 시도들이 저자성을 소멸시켰다고 지적하며

10) 피터슨에 따르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예레미야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심미적’인 진리의 현상 앞에서 여전히 세속적인 헌신을 다짐을 보이는 반응을 보인다(피터슨, 2006: 350-351).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왜곡된 해석을 구축해가신다. 콰비스는 『이렇게 승리하라』에서 이미지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면서, 죄로 물든 욕망과 소비의 이미지를 거부하고 구축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행동하는 ‘구속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ombis, 2013).

저자를 부활시켜야 온전한 해석, 진정한 소통의 행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성경 해석에서 상상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해석자가 경험하는 이해와 반응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 진정한 소통은 뱀후저의 언급처럼 텍스트에서 “아무것이 나(anything)” 발견해서 그것에 대한 해석자의 생각이나 느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소통은 텍스트가 이미 말하고 있는 “무엇(something)”을 해석자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실히 찾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뱀후저, 2012: 350).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이 저자이신 성경을 해석할 때 더욱 강조된다. 상상은 때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서 독자로 하여금 이미지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깊고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이것이 성경의 문자 중심적 해석을 넘어서 성경의 숨겨진 의미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경의 언어는 명시적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다. 성경에는 독자가 상상을 해야만 하는 시적 언어와 은유적 장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사건에는 그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상상하기를 단순히 독자의 자유로운 해석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성경적 해석 원리로서 상상하기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 성경의 표면적 내용 너머에 있는 저자이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상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탐욕과 욕망이라는 왜곡된 이미지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속된 언어, 순결한 언어의 상징을 통해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거짓이 아닌 참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리가 담겨있는 은유, 생명의 이미지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유와 이미지로 성경을 접근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당시나 현재의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초월적 진리의 세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선입견을 깨고 그것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 상상은 우리가 경험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세계를 넘어 초월적 진리의 세계를 깨닫도록 사고의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인식의 도구가 된다. 성경을 사실적 언어로만 접근하여 문자주의적 해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사용하는 은유와 시적 언어들을 의미의 제공자인 하나님 안에서 동시에 한 분 저자이신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 안에서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말하기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읽음보다 들음으로써 전달되었으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글이란 점에서 내러티브적 성격을 지닌다. 문학적 장치로서 내러티브는 일종의 ‘구성’을 갖는다. 이야기 자체가 상황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의 관점에 따라 첨삭되는 구성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은 성경에서도 적용된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인간 저자들이 선택한 다양한 문학적 양식을 통해 구성된 내러티브적 증언의 형식을 지닌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를 담은 메타이야기로서 일관된 방향을 가지며 그 큰 이야기의 속에서 다양한 내러티브들이 중심 메시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문학적 통일성을 지닌다. 따라서 각 내러티브의 줄거리를 정리하는 일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은 메타이야기 안에서 해당 내러티브의 의미와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연극적 읽기에서 성경의 각 내러티브를 구체적 장면으로 구현할 때 성경 전체의 핵심 줄거리는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메시지이자 각 장면의 정확한 이해와 위치 파악에 중요한 거점이자 기준이 된다. 한편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말하는 과정은 교리를 내러티브화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전체 줄거리는 결국 정경으로서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리적 이해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줄거리는 성경의 내용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성경 해석에서 ‘말하기(speaking)’ 원리는 이와 같은 줄거리를 ‘말하는’ 행위로도 나타난다. 줄거리를 단지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리 내어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뱀후저의 언급처럼 행위를 수반한 소통행위일 뿐만 아니라 증언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신앙을 기초로 전체 줄거리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메시지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현재를 사는 ‘나’로서 증언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내러티브에서 역할을 맡은 인물로서 ‘말한다’면 재현적 연극으로 구현되는 성경 속 과거 사건에 참여하여 목격하고 증언하는 체험을 통해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거나 전해들은 바를 증언하는 성격이 강하다. 바네트는 증언이 갖는 법정적 차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증언’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만큼이나 정확하게 자신이 실제로 보고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언급들에서는 ‘증언’이란 용어가 기본적으로 내면의 종교적 체험과 관련되지 않았다. ‘증거’는 확고한 사실들, 즉 실제로 체험하고 목격한 사건들의 세부적인 날짜, 시간, 장소, 정황 등에 관한 것이다(바네트, 1994: 63).

연극 작업에서 텍스트의 줄거리를 말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나 압축된 내용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복음서의 줄거리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사도들이 목격한 구체적 시간과 장소의 정황을 가진 내용으로 압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해석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사실을 통해 독자의 각성을 촉구한다. 성경의 인간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증언의 형태로 알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명을 담당한다.¹¹⁾

이와 같은 증언과 선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하고 알림으로써 말과 행위의 소통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¹²⁾ 이미 연극적 읽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배 중에 성도가 다함께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초청해 함께 이루어 가셨던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실존적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 점에서 이미 성도들은 복음의 증언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스미스의 언급처럼 “매주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의 뼈대가 되는 구조를 리허설(Smith, 2009: 192)”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극적 해석에서 ‘말하기’의 원리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전제하는 역사적 해석을 반영함과 동시에 증언의 행위에 적용된다. 증언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11) 밴후저는 플랜팅가의 언급을 인용하며 성경을 이루는 증언의 언어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원천이 될 것을 주목한다. 플랜팅가에 따르면 “우리가 그 신님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증언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만약 신님의 원천으로서 증언과 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매우 초보적인 종류의 언어밖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Plantinga, 1993: 78./ 밴후저, 2012: 469에서 재인용).”

12) 밴후저는 행동이 말(words)보다 크게 소리내어 말한다면(speak), 이해를 말하는 신앙은 말과 행위라는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방식 모두를 포함한다고 언급한다(Vanhoozer, 2014: 1).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예배 때의 사도신경과 전도할 때의 복음으로 ‘말함’으로써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증언의 역할을 한다. 다른 하나는 인물로서 과거 성경 속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진리가 드러나는 현장의 목격자로서 증언하거나 사건의 단순 참여자로서 성경의 메시지가 증언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성경의 줄거리를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이야기의 요약을 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삶의 뼈대를 이루는 메타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이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다. 그들의 증언을 듣는 오늘의 독자도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는 삶으로 부름 받았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믿음의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증거할 뿐 아니라, 순종하여 따라가며 읽게 되고 동시에 삶에서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순교의 삶을 살게 된다. 성경 해석에서 쓰이는 연극의 개념과 실체는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성경을 전인격적 수용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통찰과 경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3. 따라가기

연극적 읽기에서 ‘따라가기(following)’ 원리는 모든 극적 행동의 동기와 역동적 방향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핵심적 원리라 할 수 있다. 따라가기는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초목표(the super-objective)를 향해 인물의 내적, 외적 행동의 방향이 맞추어진다는 의미이다. 초목표와 목표는 사실주의 연기체계를 구축한 연출가 스타니스랍스키가 창안한 개념으로, 즉흥연기 훈련에서 배우가 상황의 자극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앞서 성경은 다양한 인간 저자들이 선택한 문학적 형식을 지닌 글들이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의 목적을 향해 통일성 있게 구성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연극적 해석의 따라가기 원리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역동적으로 정리한 초목표 아래 각 내러티브와 장면들이 의미하는 바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성경의 통일성 있는 해석에 기여한다. 동시에 각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물의 행동의 구체적 동기를 발견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연극적 행동을 구현하는 핵심적 원리로 기능한다.

연극적 읽기에서 따라가기의 원리는 초목표와 목표라는 두 측면에서 기능한다. 하나는 전체 텍스트를 관통하는 중심메시지인 초목표를 따라 각 장면과 사건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각 상황에서 인물이 텍스트 속 진술처럼 움직이도록 하는 마음의 움직임, 즉 동기와 욕구를 발견하는 일이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구현의 메시지를 담으며 그 회복이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그 방향이 집중되어 있다. 그 점에서 따라가기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드러나는 성경 전체의 초목표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성경 해석을 기독교적으로 이끈다. 한편 성경의 초목표에 집중하는 기독교적 해석은 성경 속 인물을 맡아 장면을 구현하는 해석자가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은 행간의 의미를 찾아 다양한 개인적 해석을 시도할 때 그 해석의 타당성과 근거를 찾도록 요구한다.

초목표를 찾는 실제적인 작업에 대해 안민수는 텍스트를 “관통하는 주된 동기”로서 초목표를 이해하며 그것은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 갈등의 과정, 결말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안민수, 1998: 123). 그에 따르면 초목표는 “첫인상과 이야기 줄거리를 좀 더 밀도있게 조금씩 압축”시켜나가거나 “작가가 제시한 것으로부터 목표를 유추”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안민수, 1998: 122). 초목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행동을 추동하는 동기로서 기능하기에 일반적으로 동사로 표현된다. 따라서 초목표는 텍스트 전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거나, 행동을 이끄는 핵심 동기이기에 역동적이며 구체적이다. 초목표의 이러한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성경의 핵심적 주제를 포괄적이되 역동적으로 접근하고 실천적으로 해석하는 데 기여한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큰 이야기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질서를 구현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가 전체 이야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라이트(N. T. Wright)는 기존의 복음서 해석에 대해 “나라”와 “십자가”의 개념을 서로 대치시키거나 혹은 둘 중 하나만을 강조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통일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라이트, 2003: 244)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전통적인 나라(kingdom) 신학들은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사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조치’를 강조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울서신을 주요한 원 자료로서 들여다보지 않은 이유일 것이며, 그러한 경향은 그들에게 크나큰 손실이었다(라이트, 2003, 245).

성경의 로마서를 비롯한 많은 서신서들은 복음의 의미와 그것이 창조와 구약 시대에서부터 어떻게 실현되어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혹은 나라를 강조하는 태도는 일부 문제에 해석을 치중하면서 성경 속 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통일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다. 라이트에 따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 예수의 공생애와 죽음 둘 다를 통해서, 그리고 그 두 사건 안에서 - 왕이 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Wright. 2003, 243)**이다. 라이트의 언급처럼 전체 이야기를 이끄는 핵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 사건에 주목하여 복음서를 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목표는 ‘이 땅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로 정리할 수 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왕권을 위임하심으로써 그의 통치를 시작하셨으며,¹³⁾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시키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왕권을 이 땅에 확실히 수립하시며 ‘참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시는 역사를 지금까지 펼치고 계신다. 앞서 언급했듯이 복음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적이고 명백하게 이 땅에 성취시킨 사건을 전한다는 점에서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자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절정 단계는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초목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다. 그러므로 사복음서가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전체 이야기의 초목표를 성취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초목표는 저자의 중심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주인공의 극적 행동을 이끄는 중심 동기가 된다.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의 초목표는 성부 하나님께서

13) 빌에 따르면 창세기에서 아담은 에덴의 동물들과 온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아담의 목표가 된다. 아담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후에도 “자신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칠 때까지 다스림을 계속함으로써 목표를 성취해야 했다(빌, 2013: 52).”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주된 동기로 드러난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메타이야기로서 바라보고 그 중심 메시지를 연극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각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구체적 행동을 근거로 마음의 움직임과 행동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성경의 사건을 추상적 개념의 지식이 아닌 삶의 정황을 전제한 상황적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내러티브 속 사건의 인물들이 서로 충돌하는 마음의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각 장면이 향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초목표와 메타이야기의 의미, 즉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의 초목표에 초점을 두는 연극적 읽기 원리인 ‘따라가기’는 성자 하나님의 초목표를 좇는 해석 태도로 나타난다. 해석자는 성자 하나님의 초목표를 따라가며 성경의 각 상황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재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구현된 내용(진리)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속 예수님의 초목표를 분석하고 따라가면서 삶의 실제 현장에서 자신이 어떤 목적을 향해 살고 있는지,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초목표와 어떻게 부합하거나 충돌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다.

4. 수행하기

연극적 읽기의 원리로서 ‘수행하기(following)’¹⁴⁾는 배우가 텍스트의 사건과 인물 분석을 토대로 얻은 목표에 맞게 인물을 내적, 외적 행동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칭한다. 본고에서 ‘수행하기’란 단어는 ‘perform’이란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는 목격자, 즉 관객을 전제로 한 ‘공연’의 성격을 가짐을 내포한다. 여기서 ‘공연’은 배우와 관객이란 연극의 최소 단위로 성립된다.¹⁵⁾ 성경을 이처럼 목격자를 염두한 공연을 전제한 텍스트로

14) 여기서 ‘행동하다’의 act가 아닌 perform(수행하다, 공연하다)의 단어로 명명한 것은, 성경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한 대로, 세상이란 관객을 염두하여 표현한 것이다. 뱀후저는 저서 *Faith Speaking Understanding*의 부제로 “교리의 드라마 수행하기(performing the drama of doctrine)”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서문에서 그는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행하심을 이해한 것을 구하고 보여줌으로써 교회에 잘 공헌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세상이란 극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통찰했다(Vanhoozer, 2014).

읽을 때 연극적 읽기의 ‘수행하기’ 원리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배우가 ‘따라가기’의 원리대로 인물의 목적에 집중하여 상황을 ‘상상하며’ 텍스트를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무대라는 극적 공간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은 행간의 행동을 찾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배우는 무대에서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면과 인물의 목적에 맞는 행동을 찾아 움직인다.

우리는 일상 행동에서 연극의 행동 분석처럼 면밀히 관찰해서 그 내적 동기를 찾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극의 공간은 일상이 아닌 연극적 약속에 의해 텍스트의 의미가 구현되는 극적 공간이므로 배우가 행동하는 목적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만일 배우가 역할로서 분명한 목적과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극적 공간에서 어떤 의미 있는 행동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우의 구체적인 행동은 인물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텍스트의 주어진 상황에 맞는 일을 직접 ‘수행하면서 (performing)’ 찾아야만 한다.

연극을 마음의 움직임이 행동으로 표현된 예술이라고 할 때, 인물의 행동은 텍스트의 정보대로 움직여보는 소위 ‘흉내 내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스타니슬랍스키와 공동 작업을 했던 크리스티(G. Christie)는 역할로서 행동의 논리를 세우는 일을 강조한다.

역할 속에서 배우의 행동 논리를 구축하는 것은 단지 직감 한 가지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것은 무대적 투쟁의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 표현 수단에 대한 정확한 계산, 행동과 감정 자체에 대한 꼼꼼한 채택을 요구한다 ... 그리하여 배우는 역할의 행동 논리를 자신의 것으로 슬쩍 바꿔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해야만 하는 것이다(크리스티, 2015: 90-91).

역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배우는 인물의 행동 논리를 분석하고 이를 무대에서 인물의 목적과 내적 상태에 가장 적합하고 납득할 만한 행동으로 체화하여 표현한다. 그러므로 배우는 단지 ‘만약 내가 그 사람이라면’이라는 가정으로 막연히 움직이거나 직관적 판단으로 행동을 찾을 수 없다. 텍스트의 저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토대로 배우가 마음의 움직임에 맞는 행동을 찾는다는 점에서 연극적 읽기의

15) 매튜스(Jeanette Mathews)는 그동안 성경의 드라마적 접근이 대부분 공연을 염두하지 않은 텍스트로 성경을 다루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성경 텍스트를 공연적 요소를 중심으로 통찰함으로써 텍스트의 드라마적 해석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박국을 공연하는 텍스트로서 분석한다. 여기서 ‘드라마적’이란 의미는 성경 텍스트의 내러티브성, 플롯, 내레이션, 대화 등에 집중하여 드라마(drama)라는 장르로 성경을 읽는 문학적 접근을 의미한다(Mathews, 2012: 64-66, 172.).

행동화는 ‘텍스트에 근거한 살아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¹⁶⁾

연극적 읽기에서 행동은 외적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텍스트에 대사나 구체적 행동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내적 행동, 즉 마음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을 떠난 뒤에도 그 곳을 떠나지 않았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하지는 않는다.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인정하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경 저자는 여호수아의 행동을 간결한 문장으로 언급하지만 특별하게 주목한다. 해석자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지 상상해볼 수 있다. 장면을 수행할 때 여호수아의 역할을 맡은 해석자는 텍스트 속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다양한 마음의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앞서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했으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있는 것을 목격할 것을 토대로 해석자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게 구축되어갔는지 상상해볼 수 있다. 해석자가 사건의 앞뒤 문맥과 더불어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성적인 이해를 기초로 인물의 목표를 찾고 이를 위해 직접 몸과 마음으로 자극에 반응하고 움직이며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수행할 때,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했을 마음의 역동을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일반 연극의 원리를 성경 읽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해석학적 긴장이 뒤따른다. 성경은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이 의도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 해석은 그 의도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극적 읽기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 이러한 연극적 해석

16) 안민수는 <리어왕>을 예로 들어 무대에서의 행동선이 사전에 인물의 분석을 토대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한다. 그는 <리어왕>에서 켄트가 추방되는 장면을 마음의 상태에 기초한 인물 이동의 힘과 속도를 분석하여 구현한다. 안민수에 따르면 “켄트는 다시 충직한 신하로 등장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추방될 때의 그의 이동의 힘은 약한 데서 출발하여 강해져야” 하며, 움직임의 속도는 “느리게 움직이다가 빠르게 퇴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한다(안민수, 1998: 225). 배우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물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얻어지며, 희곡에 나와 있지 않은 움직임을 찾아냄으로써 사건을 대하는 인물의 내적 심리와 태도를 현실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인물의 구체적 이동과 양태는 배우의 즉흥 연기를 통해 찾아지겠지만, 연출가는 사전에 텍스트 전체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근거한 인물의 목표를 분석하여 그것에 맞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배우와 협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의 긴장은 성경 저자가 갖는 이중성, 즉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 저자인 성격과도 관련된다. 성경을 해석하고 장면을 수행하는 해석자가 성경이 본래 제공하는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올바른 인식을 도우셔야 하기 때문이다. 연극적 해석이 텍스트와의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소통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실천적 삶의 원리로 삼는 데에는 유익이 있으나 연극 매체가 지닌 체험적 특성은 해석자의 주관성을 많이 개입하게 할 수도 있다. 연극적 해석의 이러한 양면적인 성격은 성경 해석의 전통적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우려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전통적 해석에 사용되는 이성적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되어 사용되듯이, 연극적 읽기의 체험적 요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 있게 사용된다면 훌륭한 해석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경직은 기독교 복음과 이를 구체화하는 문화적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기독교의 복음을 구체화해야 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 개입되는 죄의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창조의 아름다움과 죄의 추함 사이의 긴장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곳에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사이의 긴장이기도 하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개혁주의 문화철학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장동민 외, 2008: 31).

이경직이 언급한 복음의 종말론적 긴장은 성경의 연극적 읽기에도 나타난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연극 매체가 성경 속 인간의 죄악과 배반,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위엄 등을 풍부하고 역동적으로 경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 긴장에 대해 우리는 연극적 읽기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경적인 방법이 되도록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은 연극적 언어와 원리가 가진 이성적, 경험적 특성에 대한 신학적인 조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신학적 접근을 포함한 텍스트의 이성적 분석과 더불어 경험을 통해 그 분석의 의미가 현실적으로 구현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역할로서의 체험을 다시 신학적 조명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경을 토대로 한 우리의 역할 체험을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결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므로 텍스트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성경적 원리에 기초하여 우리는 ‘수행하기’의 적용이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지,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밴후저는 “다른 배우들이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다르게 수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같은 역할, 즉 제자의 역할을 준비한다”고 언급한다(Vanhoozer, 2005: 374).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이며, 제자로서의 삶은 성경 속 요한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의 “역할에 자신을 헌신하되 그 역할을 다르게 수행”하는 것이다(Vanhoozer, 2005: 374). 밴후저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각자의 역할로 헌신하고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극의 풍부함에 공헌하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강조한다(Vanhoozer, 2005: 374).

밴후저는 배우의 인물과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병치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종말론적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필자는 밴후저의 이러한 연극적 통찰에 동의하며, 성경 읽기에서 ‘삶의 문법’을 담은 연극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삶의 행동으로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그들이 이해한 성경의 해석을 드러낸다고 할 때, ‘수행하기’는 연극적 읽기 원리를 통합적으로 구현한다. 해석자가 텍스트에서 인물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지향점인 목표를 ‘따라가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구체적인 현실로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며 목적에 맞는 몸과 마음의 행동을 찾음으로써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극적 해석을 통해 성경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역할을 맡은 해석자는 사건의 의미를 파악해서 주어진 장면이 먼저 자신에게 ‘믿어지게끔’ 스스로 설득하여 거짓 없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타니슬랍스키가 말하는 ‘연기를 생활하는’ 연극적 태도는 일상 삶의 정황에서 성경 텍스트가 지향하는 초목표,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으로서의 인식을 계속적으로 의식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대본으로서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제시한다. 배우가 역할로서 연극의 마지막을 알고 자신에게 부여된 목표를 따라 임무를 수행하듯,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연극적 상상과 통찰,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드라마의 종말론적 완성을 기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갈 때 자신의 삶에 부여된 소명, 구체적 목표를 찾아 끝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III. 나가는 말: 삼위일체적 해석의 구현

성경의 진리 규명은 오랫동안 이성과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서는 성경을 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했고, 최근에는 내러티브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함께 인간의 수용과 실천의 측면을 강조하여 성경의 진리가 경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필자는 연극적 읽기의 원리를 통해 성경을 이성과 경험의 측면에서 균형 있게 접근하고자 했다. 연극적 읽기는 뱀후저가 언급했던 “오순절적 다원성(뱀후저, 2012: 674)”을 잘 담아낼 수 있다. 즉 신학적 조명이 전제된 연극적 읽기는 성경에서 가능한 의미들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하되, 의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참된 해석”이 되도록 기여할 수 있다(뱀후저, 2012: 675).

그러나 성경의 계시는 인간의 언어로 된 문학 형식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해석적 긴장을 갖는다. 성경의 신적 저자가 갖는 객관성을 전제하지만 인간 저자가 갖는 저작과 해석의 특성상 인간의 주관성과 자율성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이자 인간의 전적인 저작이라는 점에서 신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을 갖는데(Wright and Lamb, 2011: 55) 이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고 계신다는 고백과도 상응한다.

뱀후저는 성경의 이 두 가지 측면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정경주의적 해석이나 인간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적 해석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삼위일체의 소통적 해석을 제안한다.¹⁷⁾ 그에 따르면 성경이 인간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문학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문자적 읽기가 필요하다. 동시에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점에서는 모든 해석적 시도와 방법이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를 발견하는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성경 자체에서 해석의 규범과 기준을 찾겠다고 볼 수 있다.¹⁸⁾

필자는 연극적 읽기의 원리를 상상하기, 말하기, 따라가기, 수행하기로 제시함으로써

17) 뱀후저는 정경주의적 해석태도나 다원주의 해석태도 모두 성경의 메시지가 아닌, 메시지를 읽고 있는 해석자 자신에게 초점을 둔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해석 태도들은 성경의 생명력 있는 말씀의 의미를 화석화시키거나 부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뱀후저는 소통적 관점에서 성경 해석 원리의 대안으로 삼위일체를 제안한다.

18) 뱀후저는 “만약 저자의 의도가 텍스트 가운데 구현된다면, 해석의 옳고 그름에 대한 궁극적인 기준은 문학적 행위로 간주되는 텍스트 자체”라고 언급한다(뱀후저, 2012: 488).

성경의 신적 특성과 인간적 특성에 접근하고자 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메타이야기이자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간의 내러티브들을 담고 있다. 성경 해석에서 연극적 읽기는 메타이야기로서 성경이 텍스트를 관통하는 초월적 원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텍스트가 제공하는 성경적 원리를 삶의 문법인 연극적 언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삶의 상황에 적용하고 연습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상상하기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야기를 우리 사고의 기본 틀로 받아들이는 ‘구속적 상상’과 구체적으로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 각 사건을 “만약~라면의 마법(magic if)”을 통해 이해하는 ‘상황적 상상’으로 나타난다. 말하기의 원리는 성경 전체의 즐거리를 말하는 행위를 통해 복음을 증언함과 동시에 텍스트의 각 사건과 주어진 상황의 구성(plot)적 위치와 신학적 경계(boundary)를 제공한다. 또 텍스트의 각 사건의 인물로서 말함으로써 참여자와 목격자로서 사건을 증언하도록 한다. 따라가기의 원리는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저자 하나님의 초목표를 따라감과 동시에 각 장면에서 인물로서 자신의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장면과 전체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는 데 기여한다. 수행하기의 원리는 메타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따라 행동함과 동시에 텍스트 속 인물로서 각자의 목표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 해석에서 이 네 가지 연극적 읽기 원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시적 측면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미시적 측면을 담고 있다. 이 원리들은 분리되어 순차적으로 성경 해석 과정에 적용되기보다는 대부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동시에 적용된다. 성경의 첫인상을 정리하기 위해 우리는 상상하지만 저자의 중심 메시지를 따라가기도 한다. 그리고 전체 즐거리를 말하는 과정에서 첫인상으로 상상했던 부분들이 결합되기도 한다. 또 텍스트의 사건에서 인물로서 말하기 위해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자극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역할의 목표에 집중하여 행동한다. 수행하기는 이 모든 연극적 읽기의 원리가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원리로서 텍스트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연극적 읽기 원리가 적용되는 양상은 삼위일체의 원리가 성경 해석에서 작용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위격으로 하나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보여지는 경륜적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로서 유기적으로 일하신다. 성경 해석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인간의 수용 과정이라고 할 때, 성부와 성자의 영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도록 조명하시는 것처럼, ‘수행하기’로 완성되는 연극적 읽기는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텍스트를 상상하고 말하고 성자 하나님이 구현하시는 성경의 초목표를 따라가는 원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 역할이 갖는 의미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내적 동기와 사건의 의미를 조명해주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연극적 읽기의 각 원리는 동시에 일어나면서도 상호 연결되고 보완된다는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시는 역동과 의미를 반영한다.

가다머에 따르면 체험은 삶에 대한 자기 확증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부터 자신에게서 분리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론적 성격을 갖는다. 연극을 통한 체험적 해석은 전인격적 요소를 담으며 그 과정에는 삶의 대상과 삶의 주체가 충돌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이 충돌에서 해석자는 성경의 주된 동기와 자신의 동기가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지 혹은 함께 하고 있는지 통찰함으로써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고자 하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 성경은 문학처럼 읽기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 행동하기 위한 텍스트이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원리를 따라 성경 텍스트의 권위를 기억하고 연극적 접근을 통해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경험한다면, 성경의 연극적 읽기는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 삶의 통치 원리로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Barnett, Paul. *Is the New Testament Reliable?: in Search of its Historical Credibility*.
김일우 역 (1994). **신약성경은 믿을 만한가?: 그 역사적 신빙성을 찾아서**. 서울: IVP.
- [Kim, I. W. (1994). *Is the New Testament Reliable?: in Search of its Historical Credibility*. Seoul: IVP. Trans. Barnett, Paul.]
- Bartholomew, Craig G. and Goheen, Michael W. (2004). *The Drama of Scripture*.
Baker Publishing Group. 김명희 역 (2011). **성경은 드라마다**. 서울: IVP.
- [Kim, M. H. (2011). *The Bible is Drama*. Seoul: IVP. Trans. Bartholomew, Craig G. and Goheen, Michael W. (2004). *The Drama of Scripture*. Baker Publishing Group.]
- Beale, G. K. (2011).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Baker Publishing Group.
김귀탁 역 (2013). **신약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 [Kim, G. T. (2013).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Seoul: The Revival & Reformation Press. Trans. Beale, G. K. (2011).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Baker Publishing Group.]
- Bourgeois, Jason Paul. (2002). Balthasar's Theodramtic Hermeneutics: Trinitarian and Ecclesial Dimensions of Scriptural Interpretation. *Theology and Sacred Scripture*. IMRI Faculty Publications.
- Christie, G. *Stanislavski's Education of an Actor II*. 박상하·윤현숙 역 (2015). **스타니슬랍스키의 배우교육II**. 서울: 동인.
- [Park, S. H. & Yoon, H. S. (2015). *Stanislavski's Education of an Actor II*. Seoul: Dong-in. Trans. Christie, G.]
- Fee, Gordon D. *How to Read the Bible*. 길성남 역 (2017).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서울: 성서유니온.
- [Gil, S. M. (2017). *How to Read the Bible*. Seoul: Scripture Union Korea. Trans. Fee, Gordon D.]
- Gadamer, Hans-Georg. (1960/1990) *Truth and Method I*. 이길우 외 역. (2000). **진리와 방법1**. Gadamer, Hans-Georg. 서울: 문학동네.
- [Lee, K. W. et al. (2001). *Truth and Method I*. Seoul: Munhak. trans. Gadamer, Hans-Georg.]
- Girard, Rene. *The Scandal Came through him*. 김진식 역 (2007). **그를 통해 스캔들이 왔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 [Kim, J. S. (2007). *The Scandal Came through him*. Seoul: Moonji. Trans. Girard, Rene.]

- Gombis, Timothy G. (2010). *The Drama of Ephesians*. IVP. 최현만 역. (2013). **이렇게 승리하라**. 평택: 에클레시아북스.
- [Choi, H. M. (2013). *Win like this*, Pyeongtaek: Ecclesia Books. trans. Gombis, Timothy G. (2010). *The Drama of Ephesians*. IVP.]
- Horton, Michael. *Reformational Organizational Theology*. 이용중 역. (2012) **개혁주의 조직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 [Lee, Y. J. (2012). *Reformational Organizational Theology*. Seoul: The Revival & Reformation Press. trans. Horton, Michael.]
- Mathews, Jeantte (2012). *Performing Habakkuk*. Eugene: Pickwick.
- Nash, Ronald H. (1982). *The Word of God and the Mind of Man*. the Zondervan Co. 이경직 역. (2001).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마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Lee, K. J. (2001). *The Word of God and the Mind of Man*. Seoul: CLC. trans. Nash, Ronald H. (1982). the Zondervan Co.]
- Pennington, Jonathan T.(2012) *Reading the Gospels Wisely*. Baker Publishing Group. 류호영 역 (2015). **복음서 읽기**. 서울: CLC.
- [Ryu, H. Y. (2015). *Reading the Gospels* Seoul: CLC. Trans. Pennington, Jonathan T. (2012) *Reading the Gospels Wisely*. Baker Publishing Group.]
- Peterson, Eugene H. (2005). *Christ Plays in Ten Thousnd Places*. Eerdmans Publishing Co. 양혜원 · 이종태 역 (2006). **현실, 하나님의 세계**. 서울: IVP.
- [Yang, H. W. & Lee, J. T. (2015). *Reality, the World of God*. Seoul: IVP. trans. Peterson, Eugene H. (2005). *Christ Plays in Ten Thousnd Places*. Eerdmans Publishing Co.]
- Peterson, Eugene H. (2006). *Eat this Book*. Eerdmans Publishing Co. 양혜원 역 (2014). **이 책을 먹으라**. 서울: IVP.
- [Yang, H. W. (2014). *Eat this Book*. Seoul: IVP. trans. Peterson, Eugene H. (2006). Eerdmans Publishing Co.]
- Plantinga, Alvin (1993). *Warrant and Proper Fuction*.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 Press.
- Smith, James J. A. (2009) *Desiring the Kingdom*. Baker Publishing Group. 박세혁 역 (2016).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Smith, James J. A. 서울: IVF.
- [Park, S. H. (2016). *Desire the Kingdom of God*. Seoul: IVF. Trans. Smith, James J. A. (2009) *Desiring the Kingdom*. Baker Publishing Group.]
- Smith, James J. A. (2009).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Michigan: Baker Academic.

- Stanislavski, Konstantin. *An Actor prepares*. 신겸수 역 (2001a). 배우수업. 서울: 예니.
[Shin, G. S. (2001a). *An Actor prepares*. Seoul: Yeni. trans. Stanislavski, Konstantin.]
- Stanislavski, Konstantin. *Building a Character*. 이대영 역. (2001b). 성격구축. 서울: 예니.
[Lee, D. Y. (2001b). *Building a Character*. Seoul: Yeni. trans. Stanislavski, Konstantin.]
- Stanislavski, Konstantin. 이진아 역. (2010). **체험의 창조적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배우의 작업**. 서울: 지만지.
- [Lee, J. A. (2010). *The actor's work on himself in the creative process of the experience*. Seoul: Gimangi. trans. Stanislavski, Konstantin.]
- Vanhoozer, Kevin J.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Zondervan Publishing House. 김재영 역 (2012).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서울: IVP.
- [Kim, J. Y. (2012).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Seoul: IVP. Trans. Vanhoozer, Kevin J. (1998). Zondervan Publishing House.]
- Vanhoozer, Kevin J. (2005).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 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Vanhoozer, Kevin J. (2014). *Faith Speaking Understanding: Performing the Drama of Doctrin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Wiersbe, Warren W. (1994). *Preaching and Teaching with imagination*. SP Publications. 이장우 역. (2012). **상상이 담긴 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 [Lee, J. W. (2012). *Preaching with imagination*. Seoul: Jordan Press. trans. Wiersbe, Warren W. (1994). *Preaching and Teaching with imagination*. SP Publications.]
- Wright, Christopher J. H. and Lamb, Jonathan.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Bible*. SPCK. 최성근 역. (201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서울: 그루터기하우스.
- [Choi, S. G. (2011). *Stroll through the Bible*. Seoul: Gruturgi House. trans. Wright, Christopher J. H. and Lamb, Jonathan.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Bible*. SPCK.]
- Wright, N. T. *How God became King* 최현만 역. (2003).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나**. Wright, N. T. 펴택: 에클레시아북스.
- [Choi, H. M. (2003). *How God became King*. Pyeongtaek: Ecclesia Books. trans. Wright, N. T.]
- 김병훈 (2011). 내러티브 신학과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 **헤르메니아 투데이**, 51, 73-99.
- [Kim, B. H. (2011). Narrative Theology and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Bible. *Hermenia Today*, 51, 73-99.]
- 김준삼 (2012). 이미지, 상상 그리고 반응: 배우의 상상력과 연기. **한국연극학**, 46,

233-282.

[Kim, J. S. (2012). Image, Imagination and Response: The Imagination and Performance of an Actor. *The Journal of Korean Theatre*, 46, 233-282.]

안민수 (1998). **연극연출**. 서울: 집문당.

[Ahn, M. S. (1998). *Theatre Direction*. Seoul: Jipmoon.]

안민수 (2015). **배우수련**. 파주: 김영사.

[Ahn, M. S. (2015). *An Actor Training*. Seoul: Gimmyoung.]

윤성우 (2004). 미메시스, 재현 그리고 해석. **해석학연구**, 14, 207-234.

[Yoon, S. W. (2004). Mimesis, reproduction and interpretation. *The Study of Analytical theory*, 14, 207-234.]

이경직 (2016).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에 나타난 삼위일체론. **성경과 신학**, 78, 153-183.

[Lee, K. J. (2016). Trinitarianism in Reformed Dogmatics of Herman Bavinck. *The Bible and Theology*, 78, 153-183.]

전국재 (1999). **연극따라 성경 속으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Jeon, G. J. (1999). *Into the Bible through Play*. Seoul: Yeyoung Communication.]

장동민 외 (2008). **개혁주의 문화철학과 문화콘텐츠**. 서울: 북코리아.

[Jang, D. M. et al. (2008). *Reformational Cultural Philosophy and Cultural Content*. Seoul: Book Korea.]

논문초록

삼위일체 해석원리를 구현하는 성경의 연극적 읽기 원리 :
 밴후저의 삼위일체 소통원리와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방법론을 중심으로

서민정 (백석대학교)

이 논문은 성경의 연극적 읽기가 이성과 경험의 균형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성경 텍스트에 접근함으로써 삼위일체 원리를 구현하는 해석적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저자 중심으로 읽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연극적 읽기가 성경의 저자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없다. 즉흥연기의 방법은 성경을 저자의 의도보다는 독자의 관심과 성향에 따라 해석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독자주도의 해석을 피하고 저자이신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필자는 성경을 연극적으로 읽기 위해 스타니슬랍스키 연기방법론의 핵심 개념들을 토대로 네 가지 읽기 원리- 상상하기, 말하기, 따라가기, 수행하기-를 제시한다. ‘상상하기’는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고 과정으로, 성경의 사건을 문자적 이해를 넘어 상황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말하기’는 줄거리를 증언하는 언어 행위를 통해 전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사건을 파악함과 동시에 인물로서 사건에 참여하는 데 적용되는 원리이다. ‘따라가기’는 텍스트를 관통하는 초목표를 따라가며 저자의 의도에 따라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 적용된다. 성자 하나님은 성경의 전체 초목표를 텍스트에서 실현하시며 인물들의 목적은 전체 초목표 안에서 찾아진다. ‘수행하기’는 인물의 체현 과정에서 우리가 텍스트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원리이다. 인물의 체현은 각 장면과 인물의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성경 해석에서 이 네 가지 원리는 분리되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기보다는 대부분 유기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 수행하기의 원리를 통해 연극적 읽기는 완성된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을 상상하고 전체 줄거리를 말하고 성자 하나님의 목적과

행함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맥적 의미를 깨달으며 텍스트에 반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를 기초로 한 연극적 읽기는 역할 체험을 통한 전인격적 요소를 지니며 그 과정에는 얹의 대상과 얹의 주체가 충돌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이 충돌에서 해석자는 성경의 주된 동기와 자신의 동기가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지 혹은 함께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통찰함으로써 자기중심적 읽기의 유혹을 극복하고 얹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제어 : 성경, 연극적 읽기, 해석, 내러티브, 스타니슬롭스키, 밴후저

